

# “가전 끌고 전장 밀고”... LG전자, 2분기 역대최대 실적 썼다

매출액 21조, 영업이익 1.2조 달성  
전년대비 각각 8.5%, 61.2% 증가  
라인업·가격대 다변화 전략 주요  
구독·온라인 등 신규 사업도 성과

LG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역대 같은 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LG전자는 25일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1조6944억원, 영업이익 1조1962억원의 확정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5%, 영업이익은 61.2% 증가했다.

특히 주력사업에 해당하는 생활가전(H&A)과 미래 성장의 한 축인 전장(VS) 사업은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LG전자는 “현재 주력사업과 미래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실적을 사업부문별로 보면 H&A사업본부 매출액 8조8429억원, 영업이익 6944억원이다.

전년 2분기 대비 매출은 11% 늘고,



LG전자가 3분기 매출액을 발표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이날 LG전자는 3분기 기준 매출액이 18조7867억원으로 집계돼, 분기 사상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영업이익은 16% 증가했다. 중남미, 중동·아프리카와 같은 신흥시장 수요 확대에 맞춰 라인업과 가격대를 다변화하는 등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는 불륨존 전략이 주요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여기에 구독, 온라인 등 신규 사업 영

역도 성과를 냈다. 지난달 LG베스트샵에서 판매된 주요 가전제품 구독 비중은 36.2%에 달한다.

TV 사업을 맡은 HE사업본부 매출액 3조6182억원, 영업이익 9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3조1467억원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467억원 대비 33.9% 감소했다. 주력 상품인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는 유럽 지역 수요 회복에 힘입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올랐다. 웹(web)OS 콘텐츠·서비스 사업에서 성장세가 지속됐으나 LCD(액정표시장치) 패널 가격 등 원가 상승 요인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줄었다.

VS사업본부는 매출 2조6919억원, 영업이익 817억원이다. 매출은 1% 늘고, 영업이익은 전년(-612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다.

BS사업본부는 매출 1조4644억원, 영업손실 5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LED 사이니지, 전자질판, 게이밍모니터 등 전자 제품의 매출 확대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 대비 9.9% 늘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LCD 패널 등 원가 상승 요인과 전기차 충전, 로봇 등 육성 사업의 투자가 이어지며 소폭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LG전자는 미래 지향적 사업구조로의 체질개선과 사업방식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오는 3분기 생활가전 사업은 시장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냉난방 공조, 빌트인 등 B2B(기업간거래) 사업 확대를 지속한다. TV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 사업인 webOS 콘텐츠/서비스 사업의 모수를 TV에서 IT, 인포테인먼트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BS 사업도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장 사업도 일시적 전기차 수요둔화에 불구하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와 그간 확보해 온 수주 물량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사업 전력화도 속도를 낸다. 제조 노하우에 AI를 결합해 올해 시작한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첫해 외부 수주가 3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 사업도 북미 1위 충전사업자 차지포 인트사와 손잡고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LG디스플레이, OLED로 적자 폭 줄였다

2분기 매출 6.7조, 영업손실 937억  
영업손실 적자 폭 전년비 7800억 ↓  
IT용 올레드 양산·사업 고도화 영향

LG디스플레이가 올해 2분기 93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폭을 7800억원 이상 줄이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올해 본격화된 IT용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양산 영향으로 영업손실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25일 오후 매출 6조7082억원, 영업손실 937억원의 2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3757억원, 전년 동기 대비 7878억원 적자 폭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회사는 “IT용 올레드 양산 본격화, 대형 올레드 생산 확대 등 사업구조 고도화 성과와 우호적인 환율 영향에 따라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출시된 애플 아이패드용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는 점과,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LGD 파주공장.

애플은 지난 5월 시리즈 최초로 올레드 패널을 적용한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LG디스플레이는 절반 이상의 패널 물량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초기에 공급에 좀 이슈가 있었지만 올해는 적기 양산과 안정적 공급 체계를 갖춰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된 생산 역량과 확대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난해 대비 패널 출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

를 통해 올해 매출과 손익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중소형 올레드 사업 부분에서 모바일용 올레드의 강화된 생산 역량과 생산 능력을 적극 활용해 전년 대비 패널 출하를 확대해 하이엔드 시장 내 점유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IT용 올레드는 장수명·고휘도·저전력 등 내구성과 성능이 뛰어난 탠덤(Tandem) 올레드 등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양산을 시작한 이후 출하를 진행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 철강·인프라 반등... 이차전지 소재 발목

포스코홀딩스, 2분기 실적 부진  
영업익 7520억 전년비 43.3% 감소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시장 수요 둔화와 전기차 캐즘의 영향 등의 악재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 5100억원, 영업이익 7520억원, 순이익 5460억원의 실적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 43.3% 감소했다.

철강부문 실적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포스코 고로 개수 등의 영향으로 생산과 판매가 줄어 전분기 대비 매출은 다소 줄었으나, 판매가격 상승 및 원료비 감소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다.

인프라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스전 매장량 재인증을 통한 감가상각비 감소와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상승했고, 포스코이앤씨도 대형 프로젝트 공정 추진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소폭 상승했다.

이차전지소재부문에서는 포스코퓨

처엠이 양극재 판가 하락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초기가동 비용 계상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하락했지만 고부가가치 제품인 하이니켈 양극재(N86, N87, NCA)의 판매량 증가와 수율 개선으로 올해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이날 정기집 포스코홀딩스 전략기획총괄(대표이사 사장)은 “회사는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투자시기 조정 등 세부적인 전술의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만, 철강과 이차전지소재사업 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부문에서 경제적 녹색전환(GX) 추진을 위해 국가 R&D 실증사업과 연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경과를 소개했고, 리튬/니켈 등 이차전지소재원료의 생산준비현황 경과 및 계획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그룹의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얀마 해상가스전 및 Senex3배 증산 확장개발 등 천연가스 생산 설비 확장 계획 진행사항도 발표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포스코인터, 2분기 영업익 3497억... “분기 최고 이익률”

에너지 사업 선방에 ‘깜짝 실적’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 2분기 ▲매출 8조2823억원 ▲영업이익 3497억원 ▲영업이익률 4.2%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에너지 사업 실적 호조로 시장 평균 전망치(컨센서스)인 2792억원을 25% 웃돌았다. 영

업이익률은 지난해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4.0%)을 갱신했다.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업에서 1996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특히 해외 가스전의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수익이 대폭 확대했다. 발전 사업은 비수기인데도 전년 대비 발전 이용률이 개선되며 견조한 실적을 보였다.

소재 사업 부문에서는 철강 및 친환경 분야를 포함해 1476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포스코인터는 원자재 시황 악화와 전기차 시장의 제한적인 성장에도 ▲친환경차 부품 ▲팜 사업 ▲2차전지소재 ▲고기능 철강소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갔다.

또 구동모터코아사업은 전기차 수요 부진에 따른 인도 지연으로 영향을 받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43만대분 제품을 판매하며 812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양성운 기자

## LG CNS, 日 에듀테크 사업 본격화

교육업체 ‘이온’과 日 시장 공략

디지털전환(DX)전문기업 LG CNS가 일본 내 300여 개 넘는 직업 여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업체 이온(AEON)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일본 에듀테크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 CNS는 ▲일본 공교육용 영어회화 AI튜터 앱 구축 ▲‘AI 스피크 튜터 2’ 앱 리뉴얼 ▲이온

온라인 학습 운영 플랫폼 고도화 ▲온·오프라인 학습 데이터 통합 및 분석 등을 추진한다.

양사는 일본 성인 이용자에게 제공 중인 AI 스피크 튜터2를 초·중학교 학생 대상으로 특화한 ‘AI 스피크 튜터 포 스쿨(가칭)’ 앱을 출시한다. 이를 통해 일본 영어 공교육 시장에 진출해 현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교과서를 활용한 AI 영어회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